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늙으면 당신과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나 늙으면 당신과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가능하다면 꽃밭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숲이 있으면 좋겠어  
 개울 물 소리 졸졸거리면 더 좋을 거야  
 잠 없는 나, 당신 간지럽혀 깨워 아직 안개 걷히지 않은 아침 길  
 풀섬에 달린 이슬 담을 병 들고 산책해야지

빼걱거리는 허리 주욱 퍼 보이며 내가 당신 “ 하나 두울~”  
 체조시킬 거야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우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야  
 이를테면 쇠고기 꼭꼭 다져넣고 파릇한 야채 띄운 야채죽으로 하지  
 깔깔한 입 안이 솜사랑을 문 듯 할 거야  
 이 때 나직히 모짜르트를 울려 놓아야지

나 늙으면.... 당신과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당신의 굽은 등에 기대 울고 싶어  
 장작불 같던 가슴 그 불씨 사그러들게 하느라 참 힘들었노라  
 이별이 무서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노라  
 사랑하기 너무 벅찬 그 때 나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말할 거야

겨울엔 당신의 마른 가슴 덥힐 스웨터를 들 거야  
 백화점에 가서 잿빛 모자 두 개 사서 하나씩 쓰고 강변 찾집으로 나가 볼 거야  
 눈이 내릴까...

봄엔 당신 연베이지빛 점퍼 입고 나 목에 겨자빛 실크 스카프 매고  
 이른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갈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같은...

가을엔 희끗한 머리 곱게 빗고 헤이즐릿 보온병에 담아 들고  
 낙엽 밟으러 가야지 저 벤치에 앉아 사진 한 번 찍을까?  
 곱게 판넬하여 창가에 걸어두어야지

벽난로에 물 올리고 담요 덮은 무릎에 책을 얹어놓고 당신과 그렇게  
 밤을 보내는거야...  
 정말 행복한 꿈이잖아... 여보 사랑해..  
 우리 꼭 그렇게 살아 보자구.. 응? 우리 행복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 살자...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 임금님의 시찰

임금님과 우의정이 세상 물정을 알아보려고 평민옷을 입고 위장하여 마을  
 시찰에 나섰다. 도중 날이 더워 들어간 어느 주막의 기둥에 아주 큰 글씨  
 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님은 왕입니다.'  
 이를 본 우의정이 당황하며 임금에게.....  
 "전하~~ 들켰사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점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월 12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사랑의 힘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두 쌍둥이입니다.  
 왼쪽 아이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  
 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는 병원의 수칙을  
 어기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두었습  
 니다.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왼쪽아이의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  
 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쌍둥이 처럼 살아가야 하는 가족, 그 중 부부는 오래  
 살다보면 식성도 얼굴 생김새도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는 후천적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아파할 때 손 얹어 주는 따스함이 부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힘입니다.

올해는 더욱 여러번 손을 잡아 주세요. 처음 잡던 날 처럼 황홀함과 응큼함  
 (?)이야 있겠습니까만 묵직하고 새하얀 눈덩이같은 맑은 정이 손을 타고 가  
 슴으로 흘러 잊었던 사랑을 되 찾을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부부의 손 잡은 사랑이 우리 가족을 따뜻한 생명으로 되살아 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엄마가 딸에게

중국 선교사가 되길 원하니?  
 중국어부터 배우거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길 원하니?  
 아프리카 말부터 배우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니?  
 성경을 읽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발폰만 들고 교회가 지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전화를 통해 오는줄로  
 착각하면 안된다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가거라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을 듣거라

# 주 일 예배

(\* 표에 형서시기가 어려울 때는 양쪽 끝은 양쪽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p>2003년 교회표어 "진각한 가정, 진각한교회" (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p>	<p>*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라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성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p>
--	---

영광송 "Calvary"

다 같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찬  
송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인도자

다 같이

\*성서  
판독

39(이사야 55)

Response Reading

사도신령

\*신앙고백  
Apostle's Creed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찬  
송

197장

Prayer  
기도

이규영 권사

성경말씀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0:9-18

인도자

성가대 찬양  
Ghrit

나무산자녀찬가대

설교  
Sermon

'주인은 하나님'

김성복 목사

찬  
송

'85장'  
(마지막찬송 일어서서)

다 같이

원곡기도  
Offering Pray

'이 믿음 다들 믿세라'  
(1절:이제음,마침음,종전사기,영,2절:다같이)

다 같이

찬  
송

◆1월의 예배위원◆

원자	주일기도	김관영, 홍영임	가목관송	Tea Time
5	노영찬	강은미	김관영, 홍영임	정관영, 정민수
12	이규영	김도원	이재음, 마영준	정선희, 조용건
19	정희자	고하영	정하영, 박하림	최득수, 최장환
26	지간영	권영림	최득수, 오지영	최재환, 최영철

김성복 목사

**▶작년 시인들◀ 이개의 참모**  
-주영림-

아스름날,  
영을 끌고 가는 버스 안에서  
구부박 웃다가 어깨에 얹혀 오는  
옆사람의 흥겨운 머리,  
나는 슬그머니 어깨를 내어 준다.  
황상 해세만 부리던 내 어깨가  
오랜만에 제대로 쓰였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산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피로한 머리를 기댄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의 따뜻한 위로가  
원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작은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아는 나이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큰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 한 것,  
그것은 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표시함이지만 사실 그는 소인입니다.  
다. 소인은 체(이)로 행하고 공자는  
義(의)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도  
작은 것조차도 베풀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지 않는 마음, 관자입니다.  
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리무엘 신부님께서 Morning Teatime으  
로 먹으라고 빵 두개를 주시고 감니다. 가난할 때 먹는 빵은  
맛을 잊었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건네준 빵은 맛볼나도 못  
고마운 빵임을 알았습니다. 빵 한 조각에 스며 있는 감동, 순수  
함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1. 교우소식  
\*원형: 이요나(박혜련 전사 명) Rotorna Hospital 2주간 예정으로 치료받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월요일(13일) 오후 1시, 교회  
\*여성 교우들의 기도모임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3. 수요예배: 2주간 의 이웃교회 방문수요예배를 마치고 금주부터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수요일 7:30 <성경강해> 총애령기

4. 교우수원회  
<원자> 1월 24(금)-26(주일) <장소> Henderson Camp  
\*아동, 학생, 청년: 2박3일 추석  
\*장년: Camp에서 숙박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10시, <토요일> 오전 10시(Camp장에서)

5.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  
\*준비위원장: 최재환  
\*준비위원: 이규영, 이규원, 박영영, 신영화, 홍영림, 권영림, 이재영  
6. 자녀사교회 운영  
\*재1년: <회장: 박영영 총무: 김성원, 서기: 최재환  
<재2년> <회장: 신영화 총무: 김영숙 서기: 안희진>

7. 제2탄선교회 모임: Teatime Hall에서 모입니다